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 사목팀 월간지

# 가톨릭 직장인



VOLUME 303 | OCTOBER 2022



崔良業  
토마스  
神父  
2022 09.07  
김도현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2년 10월호 / 통권 303호

발행일 2022년 10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2©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ontents

VOLUME 303 | OCTOBER 2022

- 렌즈로 보는 세상 4
- 함께 읽는 성경 6 그리스도인의 영성
- 전례와 생활 10 미사 바로 알기 (11) - 마침과 파견  
14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 News & Views 17 직장사목팀 행사 및 소식
- 교회의 가르침 18 기술 지배 패러다임  
22 원시보 야고보와 정산필 베드로
- 신앙과 삶 26 노년의 아름다움
- 듣다 읽다 보다 30 고전 음악을 듣다  
36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42 정석의 이 도시(2) - 작아도 강한 가미야마(神山)  
48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52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 THE COVER

최양업 신부님 초상

그린이: 정도운 엘리아(<http://artist-jdw.com>)



낙엽이 꽃이 되는 가을은 다채로운 그 색처럼 지나간 계절의 수많은 일상을 품는다.  
소복이 쌓인 낙엽을 밟으며 흘러간 추억을 보듬고 삶을 매만지는 시간을 갖는다.

/

윤정민 마틸다



## 그리스도인의 영성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학교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매주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본문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필사해봅시다.

### 1.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역사성을 지닌다.

⋮

마르코 14장-16장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신앙적 열성을 갖고 사는 삶으로서, 실제적 역사성을 지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사랑의 계시에 대한 진정한 응답이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지식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할 때 비로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역사적 종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격적이고 봉사적인 제헌, 특히 그분의 죽음과 수난, 부활의 신비는 실제적인 역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해서 당신의 사랑과 계시를 결정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학이나 철학 이전에 신앙과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일치를 통해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그리스도 신비의 삶입니다. 이 신비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가시적 구조 즉, 교회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이 신비는 이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고 모두 하느님의 창조입니다. 또한 이것의 표현은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추구하는 바는 하느님이지만, 인간 상호적인 관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함께 한다고 봅니다. 결국, 인간 생활 안에서 나타나는 하느님의 역사하심에 인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인간 상호적인 면을 가진다.

⋮

사도행전 2장-5장을  
읽어보세요

인간 상호적인 생활이란 공동체의 생활, 동료들과의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영성도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심리적, 감각적이 아닌 초감각적인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추상적인 지식도, 윤리도 아니고 자기완성의 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인의 영성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만나시는 근본적 장소가 됩니다. 교회는 현재 그리스도가 활동하시고, 따라서 인간을 성화시키고, 인간을 성부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교회의 전례생활이 그리스도 신자생활의 원천을 이룹니다. 영성은 “하느님 체험이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 양상”이라는 의미까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찰(reflection)이라는 의미는 마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니는 다양한 체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성사적 일치를 지향한다.

⋮  
코린토전서 10장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신자는 한 몸을 이룹니다. 특히, 성찬의 빵과 잔에 참여로 신자들의 일치를 강조했습니다(1코린 10,16). 또한 결혼의 언급에서는 초월적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페 5, 22-23) 그런데 그리스도와와의 일치에 있어서 기초는 그리스도의 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1코린 2,13). 그런데 이것은 성사적으로 합치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찬적 몸을 의미한다(1코린10,17). 성찬으로 그리스도와 신자, 신자와 신자가 일치됩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 일치의 원천으로 계시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백성의 현존을 구상화시키는 예식적이고 성사적 행위이고(1코린11,27-32), 둘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에 대한 기념 및 선포의 집합점이 되고, 셋째는 구원을 충만히 성취시키는 분은 부활, 영광스러운 육체를 지닌 그리스도뿐이라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4.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초월적인 면을 갖는다.

⋮  
마태오복음 10장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역사성 외에 초월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생활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생활이고, 은총이 성화된 생활이고, 성령에 압도된 은총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로마 8,9 참조). 초월적인 하나님을 세상을 화해시킨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지속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안에서 자신을 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하나님께로 변화시킬 때 비로소 이루어 집니다. 이같은 하나님과의 일치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인간 최고의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역사적 실존에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삶은 항상 긴장관계가 있습니

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단순한 인간적 범주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5.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

⋮  
로마서 5~6장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교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킨 자유, 율법, 죄, 죽음, 특히 자아로부터 자유(로마 6,7-11,14)에서 살도록 권고합니다. 율법이 우리 구원의 원인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를 얽매지 못하고 복음 아래서 올바른 분별과 계발된 양심에 의해서 자유가 사용됩니다. 다만 일의 정당성과 다른 이에게 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신자는 죄에서 분리되어 순결과 정의의 생활을 하도록 따로 세워졌다는 의미에서 신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인간의 내적, 외적 활동에 미덕과 덕행이 풍성하게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의 행복으로 연결됩니다. 성령의 결과로서 행복이란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로마 5,1),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축복과 영원의 희망 속에 살 수 있습니다. 환난, 고통 등,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신비적 일치에 의해, 동시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신비로운 경험이요, 그리스도 신비의 깊은 참여가 됩니다.(골로 1,24) ☞



## 미사 바로 알기 (11) - 마침과 파견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일반적으로 사회의 의식들은 인사, 폐회선언, 노래 등으로 끝을 맺습니다. 미사도 공적인 공동체의 예식이기 때문에 전례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침 예식이 있습니다. 마침 예식은 시작과는 다르게 구성이 단순합니다. 훈화나 공지, 인사, 강복, 파견, 퇴장으로 구성됩니다. 미사 전례를 마감하면서 사제와 교우들이 인사를 나누고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한 다음 파견하는 예식입니다.

### 영성체 후 기도와 사목적 훈화

영성체 예식과 더불어 성찬의 전례는 영성체 후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이 기도는 영성체를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자 우리가 참여한 미사의 신비가 실생활 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나면, 예식의 한 부분은 아니지만, 사제는 필요에 따라 사목적인 당부나 공지 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도 후에 신자들이 자리에 앉으면 사제나 공동체의 대표는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나 전례 시기, 축일 혹은 교회 활동에 관한 보고를 장황하지 않고 간단하게 전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서로 알고 상호협력을 통해 신자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서로의 신앙을 연결해주고 사회 안에서 더 넓고 견고한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마침 강복

마침 강복은 미사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사제와 교우들이 인사를 나누고

성삼위의 이름을 부르며 비는 강복과 십자 성호로 이루어집니다. 마침 인사는 시작 예식의 인사와 표현은 같지만, 말씀과 성찬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계속 함께 계시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교가 퇴장하면서 신자들에게 강복하던 관습이 중세 후기 이후에 사제들에게도 허용되었고, 전례 개정 이후에 강복을 하고 파견을 하는 현재 순서로 정립되었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기회에는 규정에 따라 더 장엄한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복을 받을 때는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이도록 권고합니다. 이는 하느님 앞에서 미약함을 드러내고 낮은 모습으로 하느님을 경외하며 강복을 받으려는 전례 행위입니다.

### 파견-복음화의 사명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Ite, missa est).”라는 파견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도직에 대한 파견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고대 사회에서 공적으로 쓰이던 이 표현은 5~6세기경에 로마 미사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파견은 선교의 임무를 가지고 신앙생활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찾습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90항에서는 부제 또는 사제가 “각자가 돌아가 선행을 하여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도록” 신자들을 파견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말씀과 성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한 이들은 이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여정을 지속하게 됩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당신의 기도 안에서 이러한 각자의 사명을 잘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이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이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발이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눈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일을 하러 가십니다. 당신의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성찬례의 기쁨과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

납니다. 미사에 참여한 모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2코린 13,13)가 이제 우리 안에 머물며 성찬례 거행을 넘어서는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 퇴장- 세상으로 나아감

미사를 집전한 사제는 전례 시작 때에 인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에 작별의 인사인 친구(親口)를 합니다. 그리고 제대 봉사자인 복사들과 함께 제대 앞에서 깊이 절하고 제의실로 돌아갑니다. 통상적으로 퇴장 행렬 중에 전례 시기에 맞춘 성가나 오르간 연주 등이 울려 퍼지며 미사 전례는 끝을 맺습니다.

사제와 봉사자들의 퇴장으로 제단 앞에 함께 모였던 공동체의 공적인 모임은 해산하지만, 미사에 참여했던 신자들에게는 파견사에 담긴 의미처럼 새로운 입장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립니다. 미사 전례 후 성당 문을 나서서 복음화를 위한 파견의 사명을 안고 다시 일상생활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의복을 갖추어 입고 전례에 참여하기 위해 성당에 들어섰듯이, 성당을 나서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고 세상으로 나갑니다(로마 13,11-14). 그러기에 썰물이 빠져나가듯 성급하게 성당 문을 나서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잠시 묵상하면서 견고한 빛의 갑옷을 차려입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믿는 것을 실천하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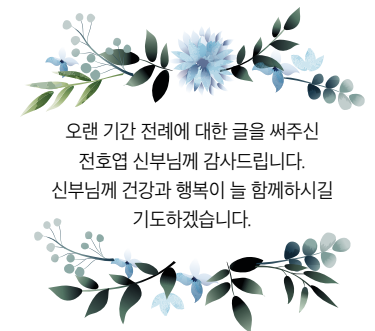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거룩한 성체 신비와 공경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만찬(Dominicae cenae)」이라는 교서를 발표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이 교서를 통해 사랑의 성사인 성체성사의 전통적 교리를 밝히시면서 한편으로 신앙은 증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성사의 거행과 묵상을 넘어서서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책

임, 특히 이웃에 대한 관심과 봉사를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는 것에 멈춰있어서는 안 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하나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체성사의 진정한 의미는 그 자체로 이웃을 향한 실천하는 사랑의 학교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되고 온전한 사랑의 질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시며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성체의 신비에 대한 감각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합니다(「주님의 만찬」 6항 참조).”

미사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자연적 결합보다 더 강한 유대로 그리스도와 일치할 이룹니다. 그분은 그렇게 일치를 이룬 가운데 하느님 나라의 선취를 위하여 우리를 온 세상에 보내십니다. 미사를 거행하면서 말씀으로 양성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활로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나누어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 이웃을 위해 희생하도록 파견되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미사에 참여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소명입니다. 이 복음적 사명의 실천이 우리를 참 제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



오랜 기간 전례에 대한 글을 써주신 전호엽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 성 레미지오

St. Remigius (축일: 10월 1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 작은형제회

세계사 가운데 서유럽의 기원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민족이 바로 게르만족입니다. 서기 375년부터 568년 및 그 이후의 시기를 두고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보고 있는데, 서로마 제국이 쇠퇴함에 따라 게르만족의 유입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입장에서 본다면,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가 훼손되는 ‘야만인의 침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르만족은 오늘날의 독일어권과 영어권 백인들의 뿌리가 된 민족으로,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잉글랜드와 네덜란드,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인 등이 게르만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게르만족은 또한 북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내려온 바이킹의 후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칠고 그야말로 ‘막무가내 정신’을 지녔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그리스도교가 처음부터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게르만족의 한 분파로 나온 민족이 프랑크족(라틴어 프랑코룸 Francorum)입니다. 후에 이 프랑크족에서 각각 프랑스, 북이탈리아, 독일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자신을 프랑크족이라고 하였냐면, 고대 프랑크어로 ‘자유’를 뜻하는 프랑크 Franc가 그 이름을 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프랑크족이 세운 나라가 프랑크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의 첫 번째 왕조가 메로베우스 왕조 (Merovingian Dynasty)입니다. 이 메로베우스는 프랑크족을 창시한 족장 메로베크 (Merovech, 411-458)의 이름을 딴 왕조입니다. 메로베크는 서로마 제국의 군인으로 서로마 제국 군사령관을 지내기도 한 인물입니다.

이 메로베크의 아들인 힐데리히 1세가 481년에 죽고, 그의 아들인 클로비스 1세가 프랑크족의 한 지파인 잘리어(Salian) 프랑크



클로비스 1세 왕에게 세례를 주는 성 레미지오 주교



클로비스 1세 임금

족의 부족장으로 등극하여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족을 기점으로 하여, 서로마 제국의 혼란기를 틈타서 여러 프랑크 부족 및 주변의 부족들을 통합하고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프랑크 왕국을 공고하게 만든 인물이 바로 이 클로비스 1세 임금이었습니다.

이 임금의 아내 성녀 클로틸드는 열렬한 로마 가톨릭교회의 신자여서 클로비스에게 예전부터 입교를 권했지만 클로비스 왕이 거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클로비스 임금은

원래 다신교를 믿었으며, 특히 이단으로 파문된 당시의 아리우스파(성자피조설, 예수님은 성부에게 종속된 피조물이라는 이설 DMF 주장함)에 관심을 지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내인 클로틸드는 결혼 직후부터 남편인 클로비스 임금에게 가톨릭 신앙을 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던 그에게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계기가 있었습니다. 496년에 게르만족과 전쟁을 하는 도중에 전멸 위기에 놓였다가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클로



비스 1세는 이 기적적인 승리가 아내가 믿는 로마 가톨릭교회 덕분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508년 랭스(Reims)에서 자기 부하 3000명과 함께 가톨릭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둘기가 나타나 성유가 든 단지를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로써 성유로 세례를 받고 임금이 되었기에, 프랑스 왕들은 이 성유를 대관식에 쓰기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프랑크 왕국의 왕은 항상 대관식을 랭스에서 주교로부터 해야만 했고, 후에 잉글랜드와 프랑스 왕국 사이의 백년전쟁에서 이 랭스 대관식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속군주의 왕권과 주교님과 교황님의 교도권 사이의 첨예한 갈등도 이런 토대에서 발원하였습니다.

바로 이 클로비스 1세의 세례를 집전하였던 분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랭스의 성 레미지오(St. Remigius) 주교입니다. 레미지오 성인의 이름도 이런 역사의 흐름에 딱 맞는 궤적을 지향합니다. 라틴어로 레미지스

(Remigis)는 그 뜻이 “노 젓는 사람, 뱃사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나 완강하던 클로비스 1세와 프랑크 왕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대한 충실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뱃사공”의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세례로 이단으로 향하던 클로비스의 항배가 주님께로 향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불과 22세인 나이에 랭스의 주교로 선출되어, 70여 년 동안 주교직을 수행하였던 위대한 “뱃사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반전 드라마의 총괄 PD이심을 다시 실감합니다. 레미지오와 레미지아라는 이름을 세례명으로 쓰시는 모든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을 이설(異說)과 이단에서 구해 주님께 인도하는 ‘영적 뱃사공’임을 항상 기억합시다.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



**[가톨릭직장인] 후원금 안내**

-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뒷면에 광고 게재 가능)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 ※ 후원금 보내주실 때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톨릭직장인] 모임교재, 편집팀 봉사자 모집**

[가톨릭직장인] 월간지 발행을 함께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편집팀: 월간지 기획 및 편집, 교정
- 모임교재: 월보 속 “신앙의 삶” 나눔 원고 기획
- 문의: 02-727-2078

**2022년 예비자교리 현황**

2022년 직장공동체 예비자 교리를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비자교리를 하시는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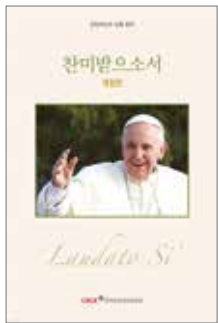
- 교리기간: 4월 18일-11월 11일, 총 30주, EDWITH를 이용한 비대면 교리
- 참고피정: 11월 12일(토) 09시 30분~16시, 영성센터 B201
- 세례성사: 11월 20일(주일) 13시 30분, 명동대성당
- 문의전화: 02-727-2078

교우회명	국회	서대문구청	시립은평병원	제주항공	SC은행	총
인원	3	1	2	2	2	10명

##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 기술 지배 패러다임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이번 달부터는 「찬미받으소서」 회칙의 제3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2장에서 성경과 교회 전통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태적 지혜를 나누었던 회칙은 이제 제3장에서 생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합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101항)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지구적 위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단순하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태 문제를 이해하는 시각에 따라 이 위기를 초래한 요소들도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의 의식과 삶의 방식이 이 위기의 근원이라는 점입니다. 회칙도 이를 분명히 합니다. “인간의 삶과 활동을 이해하는 특정한 방식이 왜곡되어 현실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빛나가게



되었습니다”(101항).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는 종(species),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종에 의해서 생태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먼저 인간의 기술 발전과 생태 위기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기술의 양면성

인류는 지난 2세기 동안 과학 기술을 통해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인간의 삶을 증진시켰고 인간 삶의 여러 가지 제한이나 불편들을 개선해왔습니다.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기술 발전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혜택과 과학 기술자들의 업적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 창의력의 놀라운 산물”(102항)이고, 그 기술을 통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가능성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회칙은 핵 에너지, 생명 공학, 컴퓨터 공학 등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준 것도 인정해야 함을 언급하며 이렇게 강조합니다. “일찍이 인류가 이 정도의 힘을 지닌 적이 없었습니다”(104항). 문제는 현대인들이 기술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 엄청난 기술 발전에 인간의 책임과 가치관과 양심의 발전이”(105항) 함께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기술의 힘에 무작정 끌려가다보니, 인간을 위한 ‘수단’이 오히려 ‘목적’이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경향 속에서 놀랄 만한 기술적 발전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며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는 진보의 신화를 전 세계로 확산시켰습니다. 그렇게 기술의 힘에 종속된 채 인류는 무한 성장의 꿈을 꾸며 “만물에서 최대한 모

든 것을 뽑아내려고 시도”하는 일에 몰두해왔고, “지구를 그 한계를 넘어서 최대한 ‘쥐어짜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106항). 지구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 무한한 양의 에너지와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그것들을 빨리 재생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제약 없는 성장을 추구해온 것입니다. 그 결과,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창조 세계는 인간이 쓰기에 참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생태 위기는 그에 따른 대가입니다.

### 기술주의 패러다임의 위험성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과학 기술이 우리 삶의 가치관으로 스며들어 삶의 전반을 지배하는 기술주의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기술주의 패러다임은 기술을 항상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기술이 인간 공동체의 가치를 결정하며, 기술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날 문명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술의 논리에 종속되어 있고, 특정 권력 집단은 기술의 힘을 통해 자연과 인간 사회를 조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술 낙관론이 힘을 얻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기술이 모든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학생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번영하게 될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리학을 전공한 그 젊은 과학자는 인류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는데, 오늘날의 기후 변화도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 낙관론은 요즘 언론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지요.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빛을 반사하기 위해 인공 구름을 만들거나 우주에 거울을 설치하자는 제안, 나노 기술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 등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기술 등장에 기대어 미래를 낙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생태 환경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만으로 이 위

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기술 혁신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기술적 해결에 대한 맹목적 확신”(14항)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시지요. 과학 기술은 중요하지만, 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본질적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증상만을 다루게 될 위험”(144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 방안만을 찾는 것은, 실제로 서로 이어져 있는 것들을 분리하고, 세계 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진짜 문제들을 숨기는 것입니다”(111항).

오늘날 생태 위기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기술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주장처럼, 인류는 과학 기술 중심의 성장과 발전의 신화에 갇힌 ‘기술대’에서 모든 생명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새로운 문명인 ‘생태대’로 담대한 전환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을 버리고 동굴에서 살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을 제한하고 그 방향을 바꾸어 기술이 다른 형태의 발전, 곧 좀 더 건전하고 인간적이고 사회적이며 통합적인 발전에 이바지”(112항)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나아가 “속도를 줄여서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가치와 중요한 목표들”(114항)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는 단순히 ‘나노 기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정하고 냉철한 자제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건전한 윤리와 문화와 영성”(105항) 속에서 생겨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 원시보 야고보와 정산필 베드로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이번에 소개할 순교복자는 지난 달에 이어서 1799년에 순교하신 순교자 두 분입니다.

**원시보 야고보(1730-1799)**는 원시장 복자의 사촌형으로 홍주 고을 옥전 이(응정리)에서 남부럽지 않은 양인 집안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매우 늦은 나이인 60살이 되어서야 사촌 원시장 베드로와 함께 천주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촌 동생 원시장이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졌다가 성격이 점차 온화해졌는데, 원 야고보는 천주교를 믿은 이후 빈곤한 자들을 위해 자선을 베푸는 일을 서약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금요일마다 단식을 하고, 주일과 축일에 음식을 장만하여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오늘은 구세주의 날이니 기뻐하며 이를 축하해야 하고, 또 천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나눔으로써 그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들의 소문이 빨리 퍼지자 먼저 사촌 동생인 원시장 베드로가 체포되어 고문 끝에 1793년 청주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때 원 야고보는 피신을 한 덕분에 죽음을 면하였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순교할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여, 공공연하게 천주교를 실천하여 자신이 신자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은 그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평소 덕행과 자선을 보고 포졸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큰 길가에 자리잡고서 대놓고 천주교를 실천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그 시기에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들어온 것을 알고, 그는 주 신부에게 성사를 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첩이 있는 사람에게 성사가 금지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주문모 신부



님이 쫓아내자, 3일 밤낮을 울며, 음식을 금하였습니다. 주 신부는 첩을 내보낸다는 조건 하에서 성사를 주었습니다. 원 야고보는 성사를 받고 돌아오자마자, 첩을 내보냈습니다. 그는 계획대로 큰 길가에 집을 짓고, 공공연하게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갔고, 축일마다 잔치를 베풀어 외교인들까지 초대하였습니다.

1798년에 그는 덕산의 포졸들에 의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천주교 신자임을 증언했고, 신자를 고발하라는 질문에 3명(같은 해 순교한 다른 3명의 순교복자)이 함께 믿는다고만 증언하였습니다. 홍주 진영에서 덕산 관아를 거쳐 청주 병사로 옮겨진 것이 1799년 음력 2월 경이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따라오자 “하느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본성의 정을 따라서는 안되오. … 고통을 잘 견디어 내시오. … 하느님과 선하신 마리아 곁에서 다시 만납시다. … 더 이상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항상 마음에 새기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청주에서 마지막 신문을 받으면서, 배교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내가 하느님을 위해 순교자로 죽기를 갈망한 지 9년이 됩니다”라고 대답했고, 이에 화가 난 재판관은 매질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관청에서 이를 본 사람들은 그가 1천 대 이상 매질을 당했다고 말했으며, 사망 후 시신 위로 놀라운 광채가 나타나, 이 광경을 보고 50여 가족이 입교하였다고 전합니다. 원 야고보의 나이는 당시 만 69세로, 1799년 음력 3월 13일(양력 4월 17일)에 순교했습니다.



정산필 베드로(鄭山弼, ?-1799)는 덕산(德山)의 한 양인 집안 출신으로, 아직 생년과 순교일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매우 간략하지만 확실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과격한 성격을 가졌고, 힘이 보통 사람을 훨씬 뛰어 넘는 장사였습니다. 주문모 신부에게 찾아가 세례를 받은 후에 성격이 유순하고 친절하게 변화되었으며, 신부의 시종을 들면서 내포 지방의 교리 교사(회장)로 임명 받아 기도와 독서를 하고, 천주교인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798년 혹은 1799년에 체포되어 덕산 관아에서 신문을 받았고, 용기 있게 신문을 받아들였습니다. 형 집행일에 주어지는 마지막 식사 때 “천주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음식을 마지막으로 잘 먹어야 하오. 그 다음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천국으로 갈 것이오.” 그는 1799년 참수형 혹은 매질형으로 나이 50-60세에 순교하였습니다. 천주교 신자의 신문 기록인 『사학징의』에는 정산필이 충청도에서 맞아 죽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에게서 여러 사람이 교리를 듣고 천주교에 입교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1797년(정사박해라고도 부름) 박해에 체포되어 순교한 대표적인 복자 방 프란치스코, 박취득 라우렌시오, 원시보 야고보, 정산필 베드로를 순서대로 소개했습니다. 이들 넷은 서로의 신앙을 격려했고, 교회 기록에 의하면 박해가 찾아오면 서로를 고발해 순교의 영광을 얻자고 약속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정에서는 서로를 고발한 증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이웃에게 비방이 되는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덕산지역 순교자들과 천주교 사적들을 조사하는 연구가 생겨났습니다. 조선시대 교우촌은 보통 외교인 지역을 피하여 산골짜기나 마을 경계에 놓이기 때문에 때때로 행정구역상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포지역이 유난히 성지 혹은 교회 사적지가 많은 것은 당시에 그곳에 물이 들어와서 물길을 통해 타지역과의 교류는 물론 피신을 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덕산지역과 관련이 있는 순교자들은 무려 117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는 그 지역 출신도 있고,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경우도 있으며, 덕산 관아 혹은 읍내 장터에서 곧 그곳에서 순교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한 덕산은 흥선대원군의 부친 남연군(南延君)의 묘가 있어서, 1868년 이른바 덕산굴총사건(=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 일어난 지역으로 천주교 박해가 가장 거세게 확장된 곳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나중에 다시 소개되겠지만, 여회장으로 유명한 강완숙(골롬바)는 바로 덕산 출신입니다. 지난달과 이번달까지 1799년 순교한 방 프란치스코, 박취득 라우렌시오, 원시보 야고보, 정산필 베드로는 바로 청주와 덕산에서 활동하고 순교한 이들로 아직 1801년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지역적 박해 때 신앙을 증거한 뛰어난 순교복자들입니다.

이들 네 분 순교복자를 다시 기억하며 짧은 호칭기도를 바쳐봅니다.

“사형전날 최후 식사 감사하며 받아 먹은 복자 방 프란치스코,  
팔일간 물도 못먹고 새끼줄로 목이 졸린 복자 박취득 라우렌시오,  
주문모 신부 교리 설명을 들은 후 첩을 내보낸 복자 원시보 야고보,  
세례 후에 급한 성격을 온순하게 바꾼 복자 정산필 베드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전구하여 주소서. 아멘.” ☩

## 노년의 아름다움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2. 삶을 바라본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피하면 좋을 일종의 질병으로 치부합니다. 사람들은, 노인들이 결코 자신들의 관심 대상도 아니고, 자신들이 노인들의 문제를 뒤치다꺼리하지 않도록 노인들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요양원이나 시설에 따로 떨어뜨려 두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버리는 문화’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취약함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게 하고, 우리가 ‘그들’과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와 무관하다 여기며 그들을 우리와 어느 모로든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오래도록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꺼려야 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충만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살아 있는 징표입니다. 행복하여라, 노인과 함께 사는 집! 행복하여라, 노인을 공경하는 가정!

노년은 항해를 포기하고 돛을 접어야 하는 때가 아니라 여전히 열매 맺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며 미래를 바라보라고 부릅니다. “인간미가 흐르게 하는 관심과 생각과 사랑에



관한 우리 노인들의 특별한 감수성이 다시 한번 많은 이들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노인들의 젊은 세대들을 향한 사랑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온유함의 혁명”, 곧 영적이고 비폭력적인 혁명을 위한 우리 노인들 나름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부모와 노인 여러분, 이러한 혁명 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성경 말씀처럼 주님께서 ‘장수를 누리게’ 해 주신 모든 이와 더불어 경축하고 자 하는 교회의 바람을 다시 한번 기쁘게 선포하는 기회입니다. 이날을 함께 경축합시다! 여러분의 본당과 공동체에 이날을 알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집에서든 요양원에서든 사무치는 외로움 안에 살고 계신 연로하신 분들을 찾아갑시다. 그 누구도 이날에 외롭다고 느끼지 않도록 합시다. 누군가 찾아오리라는 기대감은, 우리 노인들이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다고 여기며 보내는 하루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만남부터 새로운 우정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방문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자비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고독의 그늘과 전쟁의 마수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온유한 사랑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우리 모두를 온유함의 혁명을 이루는 장인이 되게 해 달라고

청합시다.

[인천주보(2022. 7. 24),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 발췌문]

※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예수님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인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의 기념일인 7월 26일과 가까운 7월 넷째 주일에 지낸다.

### Question

교황님의 담화문을 읽어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노년에 대한 나의 생각(의미, 두려움, 편견 등)을 나누어 봅시다.

###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집회서 25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실천(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인생 전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생의 모든 단계는 영원을 위한 의미 있는 준비이다.”

[성 요한바오로 2세: 노인들에게 보낸 서한]

‘노년의 희망은 사회적 차원의 연대와 공감, 공동체적 실천을 요합니다. 가족이 돼 주고, 공동선을 위해 실제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 이들 것인가’를 묻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어찌 하기 힘든 하나의 벽이자 도전입니다. 그 벽은 우리가 그 안에 갇혀 도무지 어찌 할 수 없기도 하고, 우리를 갈라놓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용기 있게 맞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싸움의 방법은 겸손과 온유, 감사와 사랑입니다. 만족스러운 노년기는 개방적인 마음으로 노화를 바라보고 접근할 때 주어집니다. 현명한 나이들이란 과거를 성찰하며 뭔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사랑이 담긴 삶에 대한 갈망, 사랑과 평화가 담긴 가치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올바른 나이들이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가톨릭신문 2020년 3월 8일, 이주형 신부]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 완성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은 다른 인간과 더불어 다른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이 진리는 그저 인간이 다양한 차원의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실천을 통하여, 기존의

사회생활에서 발견되는 의미와 진리, 곧 선을 끊임없이 추구하기를 요구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165항]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도문**

“주님, 저에게 장수의 복을 베풀어주시고 주님께 피신하는 이들이 언제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오, 주님, 저의 체념과 절망을 용서하시고 저의 기력이 쇠하여도 저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래를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희망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치시고 제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저를 주님의 온유함의 혁명을 이루는 장인으로 삼으시어 저의 손주들과 주님 안에서 쉼 곳을 찾는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지키게 하소서. 오, 주님,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외로움에서 구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끄소서, 아멘.”

CORNERSTONE



전동성당 (殿洞聖堂, 한국 천주교 순교 1번지에 우뚝 선 아름다운 성당)

전동 성당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유교식 조상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워 참수형을 받은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가 순교한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동 성당 터는 ‘한국 천주교 순교 1번지’라고 불립니다. 또한 ‘호남의 사도’로 불린 유헌겸 아우구스티노와 김유산 토마스, 유헌겸의 동생 유관겸과 이우집, 윤지충의 아우 윤지현이 순교한 곳이기도 합니다.

전동 성당 초대 주임인 파리 외방전교회 보두네 신부는 20세기 초 전동 성당을 지을 때 일제 통감부가 전주에 신작로를 닦으며 풍남문 성벽을 헐자 이 성벽 돌과 흙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이를 가져다가 성당 주춧돌로 사용했습니다. 유헌겸을 비롯한 전동 성당 터에서 치명적인 순교자들의 목을 호수했던 성벽의 돌을 성당 주춧돌로 사용함으로써 이곳이 순교지일뿐 아니라 신앙의 요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사기간동안 전주 시내 신자들은 물론 진안, 장성 등지의 교우들이 밥을 지어먹을 술과 양식을 짊어지고 와, 손에 굳은 살이 어깨에는 흙이 생기도록 자원 부역을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공사를 시작하지 7년 만인 1914년 외부공사를 마쳤는데, 이듬해 초대 주임 보두네 신부는 성당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56세의 나이로 선종합니다. 그 뒤를 이어 받은 제2대 본당 주임인 라크루 신부의 주도로, 1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내부공사를 진행하여 마침내 1931년, 착공한지 23년만에 성당을 완성합니다.

호남 최초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서양식 건물로 1981년 사적 제288호로 지정된 전동 성당은 2006년부터 대대적인 보수사업을 시행했고 이어서 전동 성당 사적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 12월 사제관 뒤편에 순교자 기념관을 건립하여 축복식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전북 문화재자료 제178호로 지정된 사제관을 보수해 유물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주변 부대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사적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전동 성당은 인근의 풍남문(보물 제308호)과 경기전(사적 제339호)을 비롯해 한옥마을, 오목대와 한벽루, 치명자산 성지까지 연계되는 성지순례와 역사문화 체험의 중심축을 이루게 됩니다. (출처: 굿뉴스/성지, 전주 전동성당 홈페이지)

전주 전동성당,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 (063)284-3222, <http://www.jeondong.or.kr>

고전 음악을 듣다

말러의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도’와 교향곡 2번 ‘부활’  
- 왜 말러인가? (2)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지난 호에 소개하였던 교향곡 5번이 1악장 장송행진곡에서 5악장 희망과 사랑으로 진행된 것과 똑같이 교향곡 2번도 ‘죽음의 악장’으로 시작하여 부활로 가는 구도로 바뀌었을 뿐이다(다만 교향곡 2번도 역시 5악장 구성이지만, 교향곡 5번처럼 3악장을 중심으로 대칭적이지는 않다). 교향곡 2번의 부제가 ‘부활’이 된 것은 프리드리히 클롭슈토크(Friedrich Gottlieb Klopstock 1724-1803)의 시 ‘부활(Auferstehung)’에 곡을 붙였기 때문이다. 말러가 당대 최고의 지휘자 한스 폰 뷔로(Hans von Bülow 1830-1894)의 장례식에서 불러졌던 클롭슈토크의 시 ‘부활’에 붙인 합창을 듣고 감명받아, 그 시를 자신의 교향곡 2번의 5악장에 채용했던 것이었다. 말러와 친분이 깊었던 한스 폰 뷔로는 1894년 죽으면서까지 말러의 교향곡 2번에 기여를 한 셈인데, 사실 3년전 1891년 말러가 교향곡 2번의 1악장 ‘장례축전(Totenfeier)’의 초고를 당시 함부르크 교향악단 지휘자였던 그에게 피아노로 소개하였다. 말러는

1888년부터 부다페스트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있으면서 교향곡 1번을 초연하였고, 벌써 교향곡 2번의 1악장의 초고를 완성한 상태였다. 점점 명성이 드높아지던 말러는 1891년 드디어 독일로 입성하여 저명한 함부르크 오페라단 음악감독이 되었다. 그는 당시 함부르크 교향악단의 지휘자였던 뷔로에게 자신감에 넘쳐 1악장 ‘장례축전’의 초고를 피아노로 소개하였지만, 기대와 다르게 뷔로는 ‘장례축전’ 초고에 대하여 혹평을 하였었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에서 불리워진 합창이 말러에게 큰 영감을 주어 교향곡 2번의 마지막 악장으로 전체 교향곡을 완성하게 하였으니, 교향곡 2번과 뷔로는 뿔 수 없는 인연으로 얽혀져 있다고 하겠다. ‘장례축전’도 폴란드의 시인 아담 미키에비츠(Adam Mickiewicz 1798-1855)에 기반하고 있다. 쇼팽도 미키에비츠의 시들에 영감을 받아 4개의 발라드를 작곡하였을 정도로 마키에비츠는 폴란드(리투아니아 혈통)의 당대 최고의 낭만주의 시인이었다. 폴란드어로 된 ‘장례축전’

을 1887년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은 다름아닌 말러의 오랜 친구이자 멘토였던 지그프리트 리피너(Sigfried Lipiner 1856-1911)였다. 이 번역시에 감명받은 말러는 이듬해 1888년 바로 교향곡 2번의 1악장으로 완성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교향곡 2번은 시작과 끝이 모두 죽음과 관련된 유명한 시에서 유래하였다.

당시 말러는 왜 그렇게 그러한 시에 감명받았을까? 이는 말러의 개인사와 관련이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1888년부터 말러는 부다페스트의 지휘자가 되었다. 말러는 빈음악원을 졸업하고 간신히 작은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전전하다가 처음으로 유명 교향악단에 취직한 것이 1887년 라이프치히 교향악단이었지만 정지휘자가 아닌 부지휘자로 취임하였다. 당시 라이프치히의 정지휘자는 그 유명한 전설적인 지휘자 아르투어 니키쉬(Arthur Nikisch 1855-1922)였기에, 말러가 지휘하기를 원하였던 바그너의 링은 늘 니키쉬의 몫

이었다. 그런던 차에 1888년 정지휘자로 부다페스트로 옮기게 되었고, 말러는 그토록 원하던 바그너를 마음껏 지휘하면서 자신의 첫 교향곡을 초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렇게 의욕적으로 활동하던 말러의 부다페스트 시절, 1889년 2월 아버지 사망, 그해 9월 여동생 사망, 10월에는 어머니마저 사망하였다. 자신의 첫 교향곡 준비에 몰두하던 말러는 아버지, 여동생은 물론 마지막 어머니 장례식마저도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는 말러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말러의 교향곡 2번은 이러한 말러의 개인사를 바탕으로 미키에비츠와 클롭슈토크의 죽음에 관한 시에 기초하여 탄생하였다. 미키에비츠와 클롭슈토크는 모두 당대를 사로잡았던 대단한 시인이었다. 쇼팽의 발라드 4곡이 모두 미키에비츠의 시에서 나왔고,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베르테르와 로테의 사랑의 암호가 시인의 이름 ‘클롭슈토크’이었던 것만 보아도 얼마나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시인인지를 알 수 있다.





**Mahler: Symphony No. 5**  
Minnesota Orchestra, Osmo Vänskä

Release Date: 28th Jul 2017  
Catalogue No: BIS2226  
Label: BIS  
Series: Osmo Vänskä Mahler Symphonies  
Length: 75 minutes  
Recorded: June 2016  
Recording Venue: Orchestra Hall, Minneapolis, United States

교향곡 2번 1악장의 기반이 된 미키에비츠의 시 'Dziady'의 독일어 번역은 두 단어가 합쳐진 'Totenfeier'인데, 직역하면 앞 부분 'Toten'은 '죽은 자들'이고, 뒷 부분 'Feier'는 '축제'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 축제? 보통은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종교인에게는, 특히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말러의 친구 리피너가 '축전(feier)'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이유는, 우리가 전통적(유교적) 제사를 지낼 때 2대, 3대 정도의 선조들 이름을 쓰고 제사상을 차리지만 사실은 그들을 비롯한 모든 '선조'를 기리듯, 폴란드어 'Dziady'는 '모든 죽은 이(특히 조상들)'을 뜻한다. 폴란드는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이므로 현재 가톨릭의 '죽은 자를 기리는 날'을 1년에 두번씩 전례화하여 기리고 있다. 그래서 리피너는 'Totenfeier (장례축전)'로 번역하였지만, 우리 한글로 직

역한 '장례축전'보다는 현재 가톨릭의 '죽은 자를 기리는 날'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한글번역이 되겠다. 미키비에츠는 러시아 등 주변 열강의 침략으로 폴란드가 지도에서 사라진 시기를 살아갔기에, 자연스럽게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강조한 애국적인 낭만주의 시인이 되었다. 파리에 망명하여 출간된 그의 시 'Dziady'는 4부작의 연작시로 드라마를 구성한다. 마치 괴테의 파우스트 전체가 시로서 이루어졌듯이. 따라서 시 자체로는 조국을 침략한 침략군에 대항하는 애국시로서, 그때 조국을 위해 숨진 모든 선조를 기리는 시가 된다. 따라서 말러에게는 죽은 자를 기리는 미키비에츠의 그 장렬하면서도 정갈진 문체가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의 죽음과 관련되어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말러는 자신이 말했듯 오스트리아제국 변방에서 이방인인 유대인 혈통으로, 어렸을 적에 형제들의 반이 병으로 죽어나가는 어려운 환경에



**Mahler: Symphony No. 5**  
Berliner Philharmoniker, Herbert von Karajan

Release Date: 12th Feb 1996  
Catalogue No: 4474502  
Label: DG  
Mahler: Symphony No. 5  
Work length: 1:13:46  
Recorded: 1973-02-16  
Recording Venue: Jesus-Christus-Kirche, Berlin

서 특히 어머니의 희생으로 작은 씨앗이 땅에 묻혀 새로운 싹을 틔우듯, 자신이 드디어 저명한 부다페스트 교향악단의 '정'지휘자로 싹이 피워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미키비에츠에게는 폴란드 애국자 선조들의 죽음의 씨앗으로 오늘날의 폴란드로 부활의 싹이 피어났던 것과 같이! 교향곡 2번은 1악장부터 잉글리쉬 호른의 'ran des vaches(알프스 목동의 호른 멜로디)'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철철 넘쳐난다. 그리고 6대의 호른이 죽음을 상징하는 '디에스 이레(Dies Irae, 분노의 그날)' 코랄을 장엄하게 울리고 있다. 중세 이래로 장례미사의 부속가로서 죽은 후 하늘에서 심판을 받는 날을 뜻하는 '디에스 이레'는 그 멜로디를 그대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물론 모차르트처럼 자신만의 '디에스 이레'를 쓰기도 하지만 이례적이다). Di-es-I-rae, di-es-illa(미-레-미-도, 레-시-도-도)의 멜로디를 꼭 기억하시

라! 이와 더불어 1악장에는 벌써 말러만의 개성이 드러나는데, 특히 이례적으로 딸림화음을 주제로 전개하고, 장단조를 자주 교체하면서 진행하고, 마지막 종지를 '붕괴(Einsturz)'로 끝낸다. 지난 호에도 '아다지에도'가 배경음악으로 쓰여 살짝 소개하였던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남주인공의 '나는 붕괴되었어요'란 대사가 유행어가 되었는데, 바로 그러한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말러는 직접 스펀어에 1악장이 끝난 후 '반드시 5분 휴식할 것!'이라고 기보하고 있다. 오늘날 연주회 사정으로 이를 지킬 수도 없고, CD도 5분을 공백을 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나치기 쉽지만, 작곡자 말러가 스스로 기보한 이 5분 휴식을 여러분은 반드시 지켜가며 감상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유드린다. 2악장은 랜들러(Ländler)로서 A-B-A-B-A의 형식으로 '지상에서의 현세적·세속적 삶'을 노래하고, 3악장에 자신의 가곡집 '어린이



**Mahler: Symphony No 2 'Resurrection'**  
Chen Reiss (soprano), Tanja Ariane Baumgartner (mezzo-soprano)  
Czech Philharmonic Choir Brno, Stuttgart Philharmonic Orchestra, Gabriel Feltz

Release Date: 2nd Aug 2019  
Catalogue No: DGCD21116  
Label: Dreyer Gaito  
Length: 90 minutes

의 이상한 뿔피리'에 의한 가곡(Lieder aus 'Des Knaben Wunderhorn', 이하 '뿔피리 가곡집')의 9번째 곡 '물고기에게 설교하는 파두아의 성 안토니우스(Des Antonius von Padua Fischpredigt)'를 인용하고 있다. 뿔피리 가곡집은 옛부터 전래되던 민중의 민요를 수집한 시집(1806-08에 걸쳐 3권으로 출판됨)인데, 우리로 치면 민중들의 해학적인 '각설이 타령'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처음 가사를 접하는 우리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당시 독일 예술계의 큰 충격과 함께 후기 낭만파의 발흥을 불러일으킨 기념비적인 시집이었다. '회고적 낭만주의자' 청년 말러는 특히 이에 감화를 받고 1880년대 말부터 1890년대에 걸쳐서 이 민중시에 노래를 붙이게 되는데, 이를 다시 교향곡에도 직접 인용하였기 때문에, 말러의 교향곡 2번, 3번, 4번은 모두 뿔피리 가곡으로부터 싹터서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가 되어

'뿔피리 교향곡'이라고 부를 정도이다. 3악장에 인용된 시의 가사는 무척 그로테스크하면서도 해학적인데, 파두아의 성 안토니우스가 교회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서 강가에 갔더니 소문을 들은 물고기들이 몰려와서 설교를 듣는데, 물고기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기뻐하며 설교를 듣는 척 하였지만, 결국 설교를 듣고 난 후 물고기들은 예컨대 장어는 예전 그대로 호색가가 되는 등 아무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우화적인 내용이다. 우리 말로 우이독경, 즉 소 귀에 경 읽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말러는 당시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척하지만 결국은 부활도 믿지 못한다는 아이러니를 교집은 듯하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에 감명을 받은 말러가 성악을 교향곡에 도입하기로 마음을 먹고, 4악장에 원광(Urlicht, 태초의 빛)와 마지막 5악장에 성악을 도입하였다. 4악장에는 'Ur-

**Mahler: Symphony No. 2**  
Tünde Szabóki (soprano), Nadine Weissmann (mezzo), Düsseldorfer Symphoniker, Ádám Fischer

Release Date: 23rd Apr 2021  
Catalogue No: AVI8553485  
Label: Avi Music  
Series: Adam Fischer Mahler Symphonies  
Length: 80 minutes



lich(元光)'이 인용되는데, 같은 뿔피리 가곡집에서 인용하였지만, 내용은 상당히 달라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의 '나(Ich)'를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그저 평범한 '일반인'으로 보아도 해석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입장에 선다면, 인간을 구원하러 온 당신에게 태초의 빛(원광)을 비추어 계속 당신의 그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켜달라는 의미가 되고, 일반인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회의 · 고뇌 · 갈등의 인간세상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알토 솔로로 부르는 이 곡은 우리에게 가사 그대로 한줄기 빛이 쏟아지는 기막힌 감동을 준다. 이렇게 4악장과 5악장의 가사 모두 너무 감동적이지만, 이 교향곡의 부제까지 된 5악장의 부활 시의 가사를 보면, 일어나라, 자, 일어나라 나의 죽음이며, 고요한 찰나 이후에 영원한 삶!

영원한 삶! 그것이 너를 부른다!  
너는 씨뿌려져 다시 소생할 것이니!  
농부가 와서 벼단을 수확할 것이다.  
우리를 위해, 죽은 자를 위해.  
(‘부활’ 시 중 일부)

이같은 가사를 기반으로 행진곡풍의 마지막 5악장은 말러의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에 대한 부활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사후 세계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두려움을 주므로) 거칠은 황야에 내던져 진 것처럼 표현하였고, 드디어 2부에서 심판의 날을 맞이하고, 압도적인 정적을 거친 후에 마지막 3부에서 찬란한 부활을 하게 된다. 그 누구도 이처럼 압도적인 감동의 부활을 그린 음악가가 있을까? '왜 말러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완벽하게 필요충분할 것이라. 🎧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 그 광야에서 - 유다 광야 그리고 수도원

심연선 소화테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예리코 서쪽에 위치한 유다 광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광야 (Judean Desert/Judean Wilderness, מִדְבָּר יְהוּדָה 미드바르 예후다)는 말그대로 유다 지역의 광야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성경 판관기(1,16), 시편(63,1)에 등장하고 신약성경에서는 마태오 복음서(3,1)에 등장합니다. 예루살렘과 사해 사이에 위치하며, 크기는 1,500제곱킬로미터이고 모양은 사해처럼 남북으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렵에 눈밭이 등장하고 산간들이 보이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잠깐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면 눈앞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소위 예루살렘 ‘바로 옆’에 위치한 곳입니다.

유다 광야는 어느 계절에 가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보통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은 크고 낮은 구릉들로 이루어진 황무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을 본다면 서쪽 해안지대, 중앙 산악지대, 동쪽 계곡지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곳은 동쪽 계곡지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서쪽 바닷가(지중해)에서 만들어진 비가 중앙 산악지대(예루살렘)에서 대부분 쏟아지고, 동쪽 계곡지대(유다 광야)는 빈 구름이 넘어갑니다. 대부분이 단단한 석회질 암반으로 이루어진 유다 광야는 물을 머금기 보다는 흘려보내는데, 흘러내린 물들 중 일부는 땅 밑으로 다니다가 지반이 약한 곳을 뚫고 나옵니다. 그 곳이 바로 ‘샘’입니다. 그 중 하나, 예인 프랏 (Ein Prat עין פרת) 이라는 샘에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동차로 약 15km 떨어진 곳입니다. 30분 정도 걸리는데, 가까이에는 ‘알몬’이라는 유대인 정착촌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나툿’이란 고대마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나툿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며, 예레미야 예언자의 고향입니다. 생소해 보이지만 구약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지명입

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를 가는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굵이굵이 유다 광야 골짜기를 따라 가다보면 푸르른 나무들과 낮은 키의 수풀들이 등장합니다. 물이 있는 지역임을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런 곳도 있단다. 한 번 찾아보렴’ 하고 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들은 노출이 되어있는데, 이곳은 골짜기에 숨어있어 더 매력적입니다. 돌 틈 사이에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물이 흐르고 물고기도 보입니다. 손을 담가보니 그 차가움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이곳은 현재 이스라엘 국립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꼭 우리나라 계곡을 즐기는 모습과 같습니다. 한 칸에 돌로 아예 풀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몸을 담그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이 물은 다른 샘에서 나온 물들과 함께 지상의 큰 골짜기를 따라 흘러 내려가는데, 그 골짜기 이름은







에인 프랏



에인프랏 가는 길



에인 프랏에서 노는 유대인들



와디켈트로 가는 길



와디 켈트

‘와디켈트’입니다. ‘와디’는 계절천이라는 뜻으로 우기에 볼 수 있는 강입니다. 와디켈트는 연중무휴로 물이 나오는 샘에서 시작되기에 건기에도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고, 우기에는 작은 강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고대에 예리코로 내려가는 길이 이 와디켈트를 따라 만들어져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광야를 갈 때에는 꼭 필요한 것이 물과 선글라스, 모자, 손수건 등 인데, 도시락도 필수입니다. 뭐 중간에서 사먹으면 되지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단 높은 기온에 상하지 않는 음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먹는 것의 기쁨을 아는 민족 중에 둘째라고 하면 서

러운 한국인들이 광야 한가운데 앉아 준비해 온 휴대용 버너로 라면을 끓여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열치열인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에인 프랏만 보신다거나 와디켈트에 위치한 수도원만 방문하신다고 한다면 스스로 가서도 관찰을 수 있지만, 보다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광야 전문 가이드와 함께 다니셔야 합니다. 길을 잃을 수 있고 핸드폰 사용이 안 되는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광야는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야말로 ‘어둠의 골짜기(시편 23,4)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씀하신 비유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착한 사마리아인(루카 10) 이야기가 나올법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저는 상상을 잠깐 했는데도 유혹에 빠집니다. 낮의 더위와 광야의 목마름뿐 아니라 밤의 어둠과 두려움이 마음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가득했던 초대교회의 성인들은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닮고자 극기와 고행을 동반한 은수생활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안토니오 성인(251~356)이 사막으로 나와 홀로 지내던 은수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모아 수도공동체를 최초로 만듭니다. 이와 비슷한 때에 이곳 유다 광야에서도 카리톤 성인(기원후 3세기~350)이 최초로 라우라(Laura/Lavra)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수도생활을 하게 되는데, 처음 만들어진 곳이 바로 에인 프랏(Ein Prat)입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러시아 정교회 성당이 있고, 수도자는 한 분 계시다고 합니다. 라우라는 ‘좁은 골목길’이라는 그리스어인데, 유다 광야 골짜기의 벼랑에 있는 굴에 들어가 홀로 은수하다 주말에 모여 성찬례를 하고 다시 돌아가는 방식으로 수도생활을 하





마르 사바 수도원



멀리서 본 성 조지 수도원



위에서 본 성 조지 수도원

었다고 합니다. 이 라우라는 유혹의 산 꼭대기에 있는 도우카(Douka)에도 세워지고, 베들레헴 아랫동네인 트코아에도 Souka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광야 영성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밖에도 유다 광야 이곳저곳에 수도공동체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베들레헴과 사해中间的 키드론 골짜기에 있는 마르 사바(Mar Saba) 수도원입니다. 사바 성인(439~532)이 계시던 곳으로 현재도 잘 남아있는데 철저한 금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은 방문할 수가 없어 아쉽게도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유다 광야 대부분의 수도원은 여자들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성모님의 도움으로 여성 입장이 가능해진 수도원이 생기게 되는데, 와디켈트에 있는 코지바의 ‘성 조지 수도원’(Monastrey of Saint George of Choziba)입니다. 이곳은 성 요아킴이 기도하다가 만나 성녀가 마리아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비잔틴 시대에 성지순례를 하던 귀부인에게 성모님이 꿈에 나타나서 ‘코지바는 나의 집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 귀부인은 유다 광야 수도원을 순례한 첫 번째 여성 순례자가 되어 지금의 저도

순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에인 프랏에서 이곳까지 오는 작은 길이 있고 이곳에서 예리코까지 내려가는 작은 길도 있습니다만, 에인 프랏에서 자동차로 다시 골짜기를 빠져나와 새 길로 이동하겠습니다. 다른 골짜기를 따라 차로 내려가면 대문같이 보이는 십자가 문이 있는데, 그곳까지만 차가 갈 수 있습니다. 도보로 한참을 내려가면 골짜기 건너편에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는 수도원이 보입니다. 작은 다리를 건너 올라가 수도원 내부로 들어가면 친절하신 사님이 달고 시원한 음료수를 주시면서 반갑게 맞이하십니다. 저는 처음 갔을 때가 여름

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그 맛있고 시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스 정교회인 이 수도원 내부에는 키프로스 출신인 성 조지의 유해와 이집트 테베 출신인 성 요한의 유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생을 이곳에서 기도와 고행을 하며 지내는 수도자들은 어떤 눈빛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감히 그 눈을 쳐다 볼 수 있었을까요? 세상을 등졌지만 세상의 빛이 되었던 광야의 수도자들의 온도를 조용히 느껴봅니다. ☺

## 정석의 이 도시(2) - 작아도 강한 가미야마(神山)

### 일본 도쿠시마현 산골마을에 인재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정석 예로니모\_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내가 좋아하는(すきな) 장소를 내 손(て)으로 멋진(すてきな) 장소로 만든다.”

지난 8월에 일본 가미야마(神山)를 다녀왔다. 코로나로 발이 묶여 4년 만에 다녀온 일본여행이었다. 대학원 제자들과 일주일 동안 도쿄 도시대학, 총무성, 지역재생 잡지 ‘소토코토’ 편집실, 가마쿠라, 가미야마, 아와지섬까지 아주 빡빡한 일정의 일본답사를 무사히 마무리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가미야마였다.

일본 시고쿠(四國) 섬의 네 개 현 가운데 하나인 도쿠시마(徳島) 현의 인구 6천 명도 안 되는 작은 산골 마을 가미야마에 인재들이 몰려오고 있다. 왜일까? 가미야마의 인재 초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NPO법인 ‘가미야마 그린밸리’의 다케우치 가즈히로(竹内和啓) 사무국장의 강의를 듣고 나니 지난 30년, 가미야마 사람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는 걸 명확히 알게 되었다. 좋아한다는 뜻의 일본어 ‘스키나(すきな)’에 손을 뜻하는 ‘테(て)’를 더하면 멋진다는 뜻의 ‘스테키나(すてきな)’가 된다. 가미야마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곳 가미야마를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멋진 곳으로 바꾸었다. 바로 자신들의 손으로. 30년 가미야마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내손으로 멋진 곳으로 만든다

2011년 12월 9일 일본 NHK 방송국은 아주 흥미로운 뉴스를 전한다. 대도시 고층 사무실에서 정장 차림으로 일하던 IT 회사 직원들이 반팔,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산골 마을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무릎 위 노트북으로 도쿄 본사와 화상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방송은 도쿠시마현의 작은 도시 가미야마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대도시에 있던 IT 기업은 왜 도쿠시마현으로, 그것도 중심부에서 한참 떨어진 해발 1천 미터 산간 마을에 위성사무소를 열고 직원을 보냈을까? 한때는 인구가 2만 명이 넘었지만 줄고 줄어 6천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 고령화율이 48%에 이르고 전국에서 20번째로 소멸 가능성이 큰 가미야마에 웹디자이너, 컴퓨터 엔지니어, 예술가, 요리사, 수제구두 장인 같은 창의적 인재들이 속속 이주해 오는 이유가 뭘까?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 사이에 91세대 161명이 이주했고, 이주해온 위성사무소와 본사는 16개 이상이라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인구가 줄어드는 시골로 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을까?

가미야마의 기적은 오랜 준비기간과 몇 단계의 진화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가미야마 진화의 중심에 NPO 법인 그린밸리의 오오미나미 신야(大南信也) 전 이사장이 있다. 1953년생으로 도쿄에서 대학을 마친 뒤 1977년부터 1979





가미야마 진화의 시작, 앨리스 인형 귀향 프로젝트

년까지 실리콘 벨리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 유학을 다녀왔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2를 발표할 무렵이었다. 귀국한 뒤 가업을 이어받아 건설회사를 운영했지만, 머릿속은 늘 인구가 줄어드는 고향을 살릴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러다가 뜻밖의 기회가 왔다.

1990년 오오미나미는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우연히 발견된 인형을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운동을 시작한다. 1927년 미국과 일본 양국 우호의 증표로 미국인들이 일본에 보낸 1만2천 개 인형 중 하나였다. 선의의 선물이 미일 전쟁으로 대부분 불태워졌는데 드물게 남아있던 앨리스란 이름의 인형이 발견된 것이다. 인형 곁에 인형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1991년 3월 앨리스 귀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인형을 보낸 사람을 추적해 마침내 찾았다. 그해 여름 30명의 방문단을 구성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킨스버그시를 방문해 인형 귀향 프로젝트를 완수했다.

첫 번째 국제교류를 성공시킨 뒤, 오오미나미는 1992년에 <가미야마 국제 교류협회>를 결성하고, 이듬해부터 가미야마로 외국인 청년을 초대하는 3박 4일 연수 프로그램 <가미야마 워크>를 시작했다. 2005년까지 13년 동안 외국인을 집에 초대하는 홈스테이에 수백 가구 이상이 참여했고, 가미야마



플랫폼 위성사무소 엔가와 앞에서

는 외지인들에 친숙하고 다양성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이는 개방된 마을로 점차 변화했다.

1999년에는 해외 예술가들을 가미야마에 초대해 몇 달씩 체류하며 예술 활동을 하게 하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2004년 12월에는 NPO 법인 <그린벨리>를 설립했다. 실리콘벨리를 생각하며 만든 그린벨리는 그 뒤 많은 일을 벌인다. 행정기관이 아닌 순수 민간의 NPO 법인이 주도하여서 해낸 일들이어서 더욱 놀랍다.

2007년에 가미야마의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이주자를 초대하는 이주 교류 지원센터를 설립했고, 2008년에는 가미야마에 와서 잠시 살아보는 체류 프로그램 <in 가미야마>를 시작했다. 이후 2010년엔 빈집을 고쳐 사무실로 개조하고 위성사무실이나 본사를 초대하는 <오피스 인 가미야마> 사업을 시작해 1호 위성사무실인 IT 기업 <산산>의 입주를 시작으로 수많은 위성사무소가 가미야마에 들어왔다.

20년 역사의 디자인회사 시즈쿠(SHIZU)도 9년 전 가미야마에 들어왔다. 산골지역이어서 삼나무가 울창한데, 많은 물을 빨아들이는 바람에 강물이 점점 줄어 삼나무 벌채가 불가피했다. 시즈쿠는 벌채되는 삼나무로 아주 멋진 디자인의 컵과 그릇을 만들어 팔고 있다. 유명 디자인회사의 가미야마 입주 이



삼나무가 컵으로 바뀌는 과정



가미야마 온천 호텔 지배인의 따뜻한 환송

유를 물으니 전국 최고의 인터넷망이라고 답한다. 산골이어도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쾌적한 환경에서 환경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업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으니 훌륭하지 않은가?

외지인의 가미야마 이주를 따듯이 맞아주고 돕는 역할을 ‘가미야마 주쿠(神山塾)’가 담당한다. 우리말로써 가미야마 학당으로 불러도 좋겠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지원을 받아 이주해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취·창업 훈련 및 인재육성 목적으로 2010년 12월에 문을 연 가미야마 주쿠를 거쳐 간 졸업생 202명 가운데 68명(34%)이 도쿠시마현으로 이주해왔다. 이주자의 20%가 창업을 했고, 졸업생 가운데 커플도 생겨 11쌍이 만나 결혼해서 아이들이 태어나 68명이 78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도시 사람이나 청년들이 농촌에 오면 지역에 오래 살던 사람들과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가미야마 주쿠가 중간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해온 것이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함께 겪고 있다. 2019년에 출간한 <천천히 재생>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 사례들을 소개한 바 있고, 일본 사례의 하나로 가미야마도 포함되어 있어 나름 여러 문헌 자료들을 통해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처음 가미야마를 방문해서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현장을 직접 답사하면서 아



‘일백탈수’ 티셔츠를 입고 기념촬영

주 놀랍고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가장 가슴 뛰게 하는 소식은 ‘마루고토 고등전문학교’ 개교 소식이었다.

그동안 가미야마는 중장년들과 청년들을 계속해서 초대해왔고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가미야마는 청소년 인재들을 초대하기 위해 고등학교 3년에 대학 2년을 더한 5년제 200명 정원의 <가미야마 마루고토 전문학교>를 준비해왔고 내년 4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200명 학생 전원을 무상으로 교육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해 단기간에 목표액을 채웠고, 학교 설명회에는 수천 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확인했다고 한다.

가미야마를 방문할 때 우리 학생들이 미리 준비한 <일백탈수 지역민국> 티셔츠를 입고 갔다. ‘일 년에 백만 명씩 탈수도권 해서, 지역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세우자’라는 운동을 가미야마의 벗들에게도 전했고, 깊이 공감하며 연대하자는 응답에 힘을 얻었다.

이들을 묵은 가미야마 온천 호텔은 밥도 맛있고 온천도 좋았다. 호텔을 떠나는 순간 지배인이 문 앞에 나와 인사를 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가슴 찡한 순간이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그 지역의 인상을 만들어준다. 다시 오고 싶어졌다. 가미야마에! 🍷



##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 Habemus Papam\*

이형중 프란치스코\_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교수

‘직업(職業)’은 사전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다시 나누어보면 ‘직(職)’이란 위임 받아 맡게 되는 직위나 직무, 직책(employment, position)을 의미하며, ‘업(業)’은 부여된 과업, 업무(전문직으로서의 profession, 천직으로서의 vocation)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외부에 나를 설명할 때, 의과대학의 교수 혹은 병원의 기획조정실장이라고 소개한다면 공격적인 의미에서 직책(position)을 말하는 것이요, 요새 시중에 회자되는 대뇌동맥류를 포함한 뇌출혈 환자를 1년 365일 응급콜을 받고 수술대기를 하는 뇌혈관질환을 치료하는 신경외과 의사라고 한다면 업(karma, vocation)이라는 의미로 말할 수도 있다. 과분하게도 능력 이상을 인정받아 공격적인 책무를 맡게 되어 병원 전체를 더 생각해야 하는 바쁜 나

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의사, 그 중에서도 매번 생과 사 사이의 어디쯤인가에서 고독한 판단을 해야만 하는 뇌혈관 외과 의사로서의 숙명은 하늘이 내린 고귀한 업이자 업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직업을 말할 때 앞의 ‘직’보다는 뒤의 ‘업’이 나를 보다 더 본질적으로 규정짓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요즈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의 직책은 무엇일까?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힘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대통령, 중국의 수상 등 강대국 수장이 떠오르지만, 권력을 발휘하는데 따르는 많은 제약과 고려하고 책임지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권력 자체의 유무가 가장 높은 직책의 기준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유엔이나 WHO 사무총장은 어떨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강대

국들의 아전투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는 명예직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란 생각이다. 이쯤에서 드는 생각은 종교계의 지도자들이고,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포진한 가톨릭계의 최고위 성직자인 교황 성하를 제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교황은 사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전체 가톨릭교회의 우두머리인 로마 대주교”로 정의되고 있다. 12억 명에 달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교황 성하를 감히 직업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무례함에 부디 너그러운 양해를 바라는 마음이다.

“종교 지도자가 심신이 지치고 아파한다면, 가장 좋은 약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영화로 풀어 낸 이탈리아 감독이 있다. 난니 모레티는 인간으로서 감내해야 할 수많은 고민과 소망을 소멸의식 하나만으로 이겨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짐작하여, 교황 추대 후 바티칸교황청의 발코니에서 거행하는 선언 연설(habemus papam)을 거절한 가상의 교황을 창작해내었다. 교황의 선종 후 권위가 된 로마교황청의 수장을 뽑기 위한 몇 번의 교황투표는 결국 특정 대주교에게 몰표를 주게 되어 과반수 득표로 교황이 선출된 멜빌 대주교는 공황에 빠지게 된다. 투표 과정 중에서 많은 대주교들은 자신이 교황에 되지 않기를 기도하더니 본인이 뽑히지 않게 되자 안도하게 된다. 발코니에서의 연설을 준비 중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공황상태에 빠진 멜빌은 시간을 달라고 청한다.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 2011>는 스스로 무신론자임을 밝힌 감독이 한계상황에 다다른 한 명의 성직자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해나갈지 그려내었다. 교황으로 선출된 멜빌 대주교는 교황청에서 타인의 참관 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면담하고 정신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그의 숨겨진 이면을 들춰내려는 시도는 궁무처장과 대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  
Habemus Papam, 2011  
드라마, 코미디 | 이탈리아,  
프랑스 | 1102분



두 교황  
The Two Popes, 2019  
드라마 | 미국, 영국,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  
126분

\*편집자주 : Habemus Papam은 교황 선거(콘클라베, conclave)로 전임 교황의 뒤를 이어 새로운 교황이 선출된 직후에 선포되는 선언문이다.

변인을 통해 제지당한다. 결국 멜빌은 외부에서 비밀리에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면담치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직업을 배우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시 경호원의 감시가 뜬해진 틈을 타 도망치게 된다. 여동생과 함께 배우를 꿈꾸며 연극 대본을 통째로 외우던 어릴적 멜빌은 원래 꿈이 아닌 성직자의 길을 밟게 되었고, 그동안 개인적인 소명의식을 충족하였으나 교황 선출 직후부터 자신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이 힘들어진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발코니 연설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하는 기사가 나오고, 그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신의 본분은 세상에서 유일한 신의 대리자로서 기도와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공적인 위치가 아닌, 숨어서 봉사하는 것이란 결론에 다다른다. 멜빌이 자리를 비운 교황청 집무실에는 그와 체격이 유사한 경비대원이 커튼 사이로 그의 건재를 알려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출연한 감독 난니 모레티는 자리에 모인 전세계의 추기경들과 배우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달콤한 도넛과 카푸치노에 일희일비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며, 성직자로서 단절되었던 가족, 부부의 영역에 까지 대화 주제를 넓히는 예기치 못한 깨알같은 재미를 연출한다.

교황 즉위 후 만 8년 만에 사임의사를 밝혔던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그 뒤를 이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있다. <두 교황, 2019>은 언뜻 종교적인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사건건 부딪히던 두 명의 리더가 타협과 변화라는 차이를 인지하게 되면서 친구가 되는 과정을 그렸다. “하느님 앞에서 나의 양심에 거듭 물었습니다. 고령으로 교황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만한 힘이 더는 남아있지 않다는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2013년 2월 11일 당시 87세의 독일 출신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자신의 사임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보수적, 형식적이며 교회의 권위를 세우려 노력한 베네딕토 16세였지만 재위 중 일어난 가톨릭 교단의 치부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자신에 힘들어한다. 그는 자신과는 지향점이 다르고 격식을 타파하며 남미에서 여러 일을 겪었던 베르골리오 대주교를 자신의 뒤를 이을 차기 교황으로 마음먹고 교황청으로 부른다.

통상적으로 나이가 들고 최고의 위치에 오르면 나오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배척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상대의 능력과 자질, 인품을 인정하는 넓고 유연한 마음과 신에 대한 진실된 사랑을 통해 영혼의 교류를 하게 된다. 선문답같은 둘의 대화는 중간 중간 베네딕토 16세의 피아노 연주와 베르골리오의 탱고를 첨가하더니, 이윽고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시절 민간인(신부님 포함)이 엄청나게 희

생되는 동안 지켜봐야만 했던 베르골리오의 참회와 회한에 이르러 정점을 찍고, 고해를 통해 마음의 치유를 받게 된다.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으며, 모두 신의 계획이라는 말과 타협한 것이 아닌 변화한 것이며, 본디 삶은 그렇게 움직인다는 새로운 교황 프란치스코의 영화 속 대사는 깊은 울림을 줌에 부족함이 없다.

고등학교 교사 댄 브라운의 소설을 영화화한 <천사와 악마, 2009>는 반 가톨릭단체인 일루미나티와 교황청의 핵심보직 공무처장의 결탁에 의한 교황 독살, 대주교 4명의 살해시도, 그리고 교황청 폭파라는 범죄를 그리고 있다. 과학만능주의를 반대하며 가톨릭교회 본연의 길을 걷겠다는 입양된 신부의 음모는 결국 미국인 기호학자에 의해 분쇄된다. 무조건적인 교황의 신뢰를 배신하며 콘클라베 외부에서 칼을 휘두르던 전직 공군조종사 공무처장의 죽음은 허무한 권력욕의 말로가 어떤지 보여준다. 그러나 이 영화에는 교황, 추기경은 보이지 않고 추기경도 거치지 않은 한 신부가 교황으로 선출되려는 계략만 있어 헛헛하기만 하다.

마지막 영화는 교황이 아닌 채 선종했던 국내 추기경을 다룬 다큐멘터리 <바보야, 2011>이다. 현대 한국 가톨릭교회가 태동하던 시기, 형님과 함께 신부가 되었으며, 모든 종교와 정파를 초월해서 사랑받았던 김수환 추기경의 이야기이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였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었으며, 최류탄이 매개하던 당시의 명동성당은 소외된 국민들에게는 치외법권의 천부적 보루였다. 가난한 자의 정신적 지주였던 추기경이 남긴 마지막 말은 “그동안 많이 사랑받아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였다. 그는 ‘직’과 ‘업’이 완전하게 일치된 삶을 살았던 축복받은 이였다. 🍀



천사와 악마  
Angels & Demons, 2009  
미스터리, 스릴러, 범죄, 액션  
미국 1138분



바보야, 2011  
다큐멘터리 | 한국 173분

##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 수도회의 개혁 성인들

윤인복 소화데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16세기 스페인은 종교적 영성이 가장 높았던 시기로, 로마의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종교개혁의 결과인 트리엔트 공의회 외에도 스페인에서는 자체적으로 가톨릭을 내부에서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예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 등에 의해 더욱 널리 퍼진 신비주의적인 신앙과 수도원과 병원 등을 건립하여 사회 복지에 힘쓰고자 했던 분위기와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가 세운 예수회가 일반 신자들의 교육에 힘썼던 것 등이다.

#### '예수의 동반자'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Ignatius de Loyola, 1491-1556)는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귀족 출신으로 궁정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지만, 궁정인의 꿈을 접고 군대에 입대했다. 군인이 된 그는 전쟁에서의 부상으로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 그는 병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생』과 성인전을 읽고 감동받고 깊은 신앙체

험을 했다. 이후 로올라는 인생의 향로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 그는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46살에 사제가 되었고, 동료들과 예수회를 설립하고, 오랫동안 수도회 총장을 맡았다.

로올라는 기도와 영적 경험을 토대로 『영신수련』 등 많은 저술과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해외 선교 사업을 펼치는데 헌신했다. 또한 당시 루터의 종교개혁에 맞서 가톨릭교회개혁에 앞장섰으며, 고아, 환자, 가난한 이들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돌보며 일했다. 로올라는 당시 로마에서 유행하던 열병에 걸려 1556년 7월 31일 로마에서 선종했다.

로마에 있는 예수회의 성 이냐시오 성당에는 바로크 천장화 특유의 놀라운 공간 확대를 보여주는 <성 이냐시오의 영광>이라는 환상적인 장면이 있다. 예수회 사제이자 화가로 활동한 안드레아 포초(Andrea Pozzo, 1642~1709)가 그린 것으로 교회의 거대한 공간에 상당한 상상력과 화려함이 돋보이는



안드레아 포초, <성 이냐시오의 영광>, 1691-94년, 성 이냐시오 성당, 로마

원근법을 적용한 작품이다. 실제로는 평평한 천장이지만 벽과 이어져 있는 그림은 마치 천장이 열리고 끝없이 높은 천상의 하늘로 곧바로 연결되는 듯한 착시 효과를 보인다. 천장화의 정점에는 빛의 근원인 예수께서 커다란 십자가를 들고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성부와 성령의 비둘기가 자리하여 삼위일체의 상징을 드러낸다. 부활한 예수님은 오른팔을 벌려 왼쪽에 천사들이 떠받치는 구름을 타고 올라오는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를 향해 내려오고 있다. 왼쪽 중앙의 한 천사는 로올라로부터 발산되어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이름(IHS)이 새겨진 방패를 들고 있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회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있다.

그림 중심부에 로올라로부터 네 가닥으로 퍼져나가는 빛은 화가가 그려 넣은 건축구조들에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이라

고 쓰인 네 모서리까지 이른다. 왼쪽 아래 아시아는 낙타를 쓰고 터번을 쓴 사람으로 나타내고, 왼쪽 위 유럽은 홀을 들고 있는 여인으로 의인화되었다. 오른쪽 아래와 위는 각각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원주민들의 복식과 인종을 표현하여 당시 유럽이 제3세계와 접촉하고 있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 천장화에는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가 창설한 예수회의 전 세계적 선교사업의 사명감이 하나의 메시지로 표현돼 있다.

###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대 데레사’로도 불리는 아빌라(Avila)의 성녀 데레사((Teresia, 1515~1582)는 스페인 아빌라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신심 깊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고 어려서부터 성인전을 즐겨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의 내면을 가꾸어 나갔다. 19세 때 가르멜 수도회에 들어간 그녀는 평생을 완덕(完德)의 길에 정진하여 살며 수도회의 발전을 위한 개혁 의지를 추진하면서, 가르멜회 내에서 많은 어려움에 맞닥뜨렸지만, 오로지 주님께 매달리며 곤경을 이겨 나갔다. 그녀의 자서전 ‘천주 자비의 글’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비적 체험, 환시, 고통, 심장의 꿇뚫음 등 내적 회심을

경험한 것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그녀가 여러 번 환시를 보고 신비스러운 음성을 들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열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빌라의 데레사는 항상 기도로 주님과 만났다. “기도란 자기가 하느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하느님과 단둘이서 자주 이야기하면서 사귀는 친밀한 우정의 나눔입니다.” 그 후, 그녀는 가르멜의 초기 규칙대로 엄격한 규율을 준수하는 수도생활을 하고자 뜻을 같이하는 4명의 수녀와 엄격한 수도생활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는 ‘맨발의 가르멜회’를 시작하면서 아빌라의 성 요셉 수녀원을 창립했다.

바로크 화가 미켈란젤로 언터베르거(Michelangelo Unterberger, 1695~1758)는 아빌라의 데레사의 신비적 체험을 묘사했다. 그녀는 고난 받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영적 여정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맨발의 가르멜 수도복을 입은 데레사에게 천사는 그녀의 가슴에 화살을 꽂으려 한다. 전기에 따르면, 어느 날 데레사는 천사의 창으로 가슴이 찢리는 환시에 빠지는데, 그 순간 몸에 고통의 전율이 느껴지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화살은 사랑의 상처를 가시화한 상징이다. 그림과 같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화살로 그녀는 온몸에 경련이



미켈란젤로 언터베르거,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환시>, 1745-50년경, 브레사노네 교구 박물관, 이탈리아

일어날 정도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겠지만, 하느님에 대한 강렬한 사랑의 희열도 동반되었다. 데레사의 몸과 표정은 영적 환시에 도달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지만, 손과 발은 이미 힘을 잃어 축 늘어져 있고 그녀의 온몸을 천사에게 맡기고 있다. 하늘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이 구름 위에서 성녀를 바라보고 있다. 아빌라의 데레사와 하느님이 교감을 이루고, 그녀는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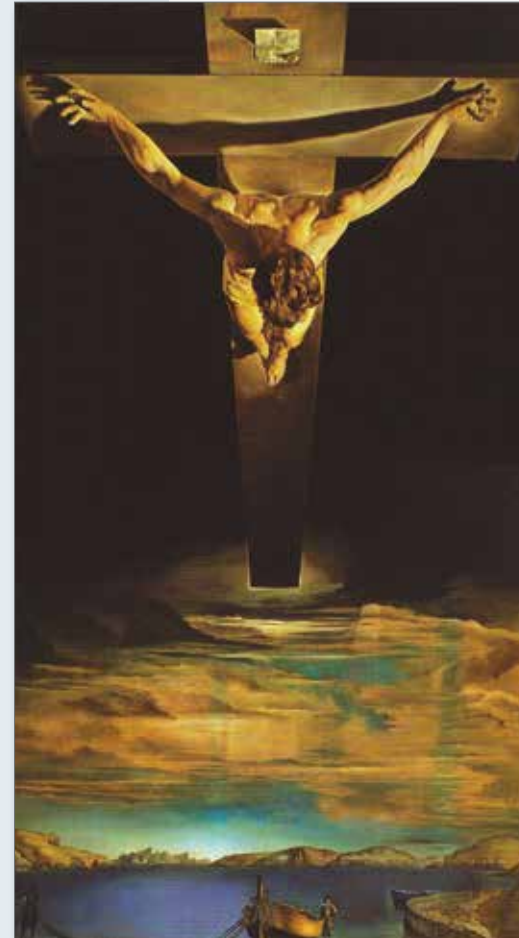


### 가르멜 수도회 십자가의 성 요한

16세기 교회 학자로서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자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Joannes a Cruce, 1542-1592)은 스페인의 아빌라 근교 폰티베로스 마을에서 세 아들의 막내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극심한 생활고를 경험한 성인은 가르멜 수도원에 입회한 후,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사제서품을 받았다. 그는 당시 가르멜 수도회의 부패와 안일에 회의를 가지던 중, 가르멜 수녀회의 개혁에 착수한 아빌라의 데레사를 만나 함께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가르멜회 본래의 엄격한 금욕 극기와 고행, 가난의 생활을 통해 관상적 수도생활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의 성스러운 일상생활과 수덕에 대한 열의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와 교감하는 신비를 체험하였고, 《영혼의 노래》, 《사랑의 산 불꽃》 같은 영적 저술을 남기게 되었다. 이후 그의 탁월한 성덕이 드러났고, 맨발의 가르멜회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토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는 스페인 아빌라의 가르멜 수도원에 소장된 십자가의 성 요한이 그린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렸다. 스페인 화가 달리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조각가이자 도안가, 디자이너로 이름이 알려진 달리의 작품들은 예술계뿐만 아니라, 광고, 영화, 패션 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달리는 기이한 이미지의 초현실주의 작품들로 유명하다. 달리가 우연히 십자가의 성 요한이 습작으로 그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후, 하느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있는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구도를 잡았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는 허공에 떠 있고 고개를 숙여 아래를 바라보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양손과 발을 꼭짓점으로 잡고 선을 연결하면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삼각형이 형성된다. 십자가 아래 바다는 스페인의 리카드 항구가 멀리 배경으로 그려졌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배경으로, 달리는 초현실주의가 추구하는 환상적인 신비의 세계로 십자가에 매달린 장면을 연출했다. 바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갈릴래아 호수를 연상케 한다. 🍷



살바토르 달리,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  
1951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미술관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 습작





목요신학강좌 트랙trackII

2022년 10월 20일  
~ 11월 24일 (6주)

현장강의 목요일 저녁 7:30-9:30  
한국CLC 5층 강의실 (영등포구청역, 당산역 이용)

동영상 녹화 강의 링크 발송, 1주일 수강

# 예수님당신과 누구입니까

2023년 가을  
그리스도인  
성장의 길

2022년 봄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2023년 봄  
교회는 누구인가,  
우리가 교회다

수강료 8만원 - 현장/동영상 중 선택가능  
청년할인 50% (40세 미만)

문의/접수

02-333-9898 한국CLC

\*강좌 일정은 교구지침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강 (10/20)

정희완 신부  
(인동교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2강 (10/27)

김진호 목사  
(제3시대그리스도연구원)



역사적 예수는  
누구인가

3강 (11/3)

이규성 신부  
(서당대)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예수

4강 (11/10)

송해경 박사  
(한남성서연구원)



코란 속에 나타난 예수

5강 (11/17)

정진만 신부  
(수원가톨릭대)



하늘나라 제자가 되기  
위한 식별의 여정

6강 (11/24)

원재우 박사  
(한국CLC)



예수의 팬(fan)에서  
예수의 벗으로

한국 CLC  
Christian Life  
Community in Kore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36길 9-3, 5층  
Tel 02) 333-9898 Fax 02) 704-2097 Email kclc@kclc.or.kr Homepage www.kclc.or.kr  
www.facebook.com/kclchope @한국CLC @christianlifecommunity\_korea

지금ON!  
한마음관심으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 명동밥집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 14:16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선함을 믿습니다.

힘든 상황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배고픈 이들에게 가까이 따스한 한 끼를 드릴 것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  
선함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 함께해주세요.

## 명동밥집 후원하기

■ 신청방법 : 홈페이지 [mdbj.or.kr](http://mdbj.or.kr) 전화 02-774-3488

## 후원계좌

■ 무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자활사업 후원 : 우리은행 1005-304-138483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밥집 봉사자 신청 : 명동밥집 홈페이지 참조 ([mdbj.or.kr](http://mdbj.or.kr))





## Jeondong Cathedral

The Jeondong Cathedral(Korean: 전동성당) also known as the Old Cathedral of Jeondong and now as the Jeondong Church of Francis Xavier is an important Catholic church in Jeonju, South Korea. (출처: 여반브러시)



[www.catholicworkers.or.kr](http://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mailto:gikjang@catholic.or.kr)